

# 한방산업단지 육성에 2천억 국비 지원 권역별 1곳씩 선정 2003년까지 조성계획

충남도는 한의학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조성 중인 한방산업 단지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방산업단지는 한의학 관련 상품 생산과 교육·훈련, 신약 개발·연구, 정보교류 등을 위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을 한 곳에 입주시켜 육성하려는 계획으로 2천억원 가량의 국비가 지원된다. 또 정부(보건복지부)는 영남, 호남, 중부권(대전, 충남, 충북, 강원) 등 권역별로 1곳씩을 선정, 오는

2013년까지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말까지 도내 6개 시·군으로부터 유치 희망지를 접수받았으며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충남발전연구원(CDI)에 '충남한방산업단지 조성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지금까지 접수된 후보지는 ▲금산(약초·인삼) ▲천안(민속촌·연구) ▲태안(약초·휴양관광) ▲공주(한방전문요양·체험관) ▲청양(구기자·약초가공판매) ▲부여(한방요양·테마공원) 등이다.

또 이달초 중부권 4개 시도 공동으로 '한방산업단지 조성 협의체'를 구성, 2차례 회의를 갖고 오는 7월까지

입지 선정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중부권 4개 시·도가 서로 한방산업단지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입지 과정에서 치열한 유치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관계자는 "한방산업단지를 유치할 경우 한약제재와 기능식품, 한방의료기구, 한방화장품, 한방연구 및 교육 등 한방산업을 집적화 할 수 있어 큰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4개 시·도간 과열 경쟁을 막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중부권을 충남, 대전, 충북, 강원 2개 권역으로 분리해 줄 것도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황, 시호 등 약재 수입물량 재검토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는 4월2일 소위원회를 소집하고, 최근 물량부족으로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지황, 시호를 비롯, 잠정수입유보중인 구기자, 산수유, 황금, 천마 등 약재에 대한 수입물량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제54차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에서 수입이 확정된 산수유·구기자 등의 한약재는 소비자측에서 수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 아직까지 실질적인 수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2월 한약재수급조절위의 결정에 따라 수입키로 했던 산수유·구기자 등의 한약재를 한국 한약제조협회 등 소비자 측에서 생산농가의 반발을 감안, 당분간 수입을 안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 적작약, 창출, 하수오 3개 품목 제외 복지부 한약재 수급 관리규정 입안예고

한약재 수급조절품목에서 적작약, 창출, 하수오 등 3개 품목이 제외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국내 생산량이 극히 저조하고 식품으로 다량 소비되고 있는 이들 3개 품목을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이에 따라 수급조절품목은 구기자, 당귀, 독활, 두충, 맥문동, 백수오, 백지, 백출,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택사, 황금, 황기 등 18종만 남게 된다.

이와 함께 수급조절위원회에 한약사회를 추가하고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을 한국한약제조협회로 변경했다. 한국생약협회는 "현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수도 생산자비 소비자 비율이 10대 6으로 불균형한 상태에서 소비자 측 위원만을 증원할 것이 아니라, 생산자측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동일한 비율로 구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 17종 한약재 건기식 원료 사용 불가 기성한의서 처방, 원료 3가지 이하면 가능

건강기능식품법의 본격 가동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고,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원료의 범위 및 기준이 마련됐다.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로 규정된 품목은 갈란타민 또는 그 염류, 건조갑상선 및 갑상선호르몬 등 84가지로 이중 한약재는 17개 품목이 포함됐다.

건강기능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된 한약재는 △견우자 △등황(옥황, 월황) △마황 △반하 △방기 △방풍 △백선피 △보두(여과송) △부자 △자하거 △사향 △상륙 △석류피 △탈지맥각 △토근 △파두 △호미카(馬錢子) 등이다.

또 섭취방법이나 섭취량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과 원료의 특성상 심각한 독성이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도 건기식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기성 한의서와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정한 기성한의서(방약합편,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광제비급, 제중신편, 약성가, 사상의학, 의학입문, 경약전서, 수세보원, 본초강목)와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에 수재돼 있는 품목과 원료 및 그 함량이 동일한 것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처방을 가감할 수 있는 한약서의 근거에 따라 가감한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원료가 3가지 이하로 구성된 처방의 품목은 건기식으로 제품화할 수 있다.

제4회 대구·경북 국제한의학박람회가 오는 4월29일부터 5월 2일까지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경북도와 공동 개최하는 국제한의학박람회는 세계 전통의학과 한의약 기초연구관, 지자체 한방육

보인다. 특히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참여해 무료 진료를 해주고 약초영농조합과 재배단지에서 생산된 각종 한방자원이 전시된다. 이와함께 한방제약, 한방의료기기, 한의사용 진단, 치료기기, 한방화장품, 건

## 국제한의학박람회 4월 대구서 개최

성관, 한의약 체험관, 한방 산업관, 한방기술관 등 6개 테마관으로 구성돼 모두 180개 부스가 설치된다.

박람회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북한 몽골 인도 등 세계 10여개국의 전통의학을 비교 전시하고 우리나라 한의약 역사 등이 소개된다. 또 한의학과 한약재연구기관, 단체의 관련자료가 전시되고 지자체별 한방육성 현황이 선

강기능성식품 등이 소개되고 산학연벤처기업, 한방관련 생명공학기업 등이 참여한 한방 관련 기술 정보도 제공된다. 이밖에도 세계특산한약재전시관과 사이버한의약체험관, 한방관련 영상물 상영관 등이 부대 행사로 운영된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약령시보전위원회가 주관하는 한방문화축제는 약전골목 일원에서 5월1일부터 5일간 열린다.

## 수입한약재 국산보다 잔류농약, 중금속 비율 높아

수입산 한약재에 잔류하고 있는 농약 및 중금속의 비율이 국산품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명희)은 한약재 220종 2천633건과 한약재 식품원료 98종 1천65건 등 총 3천 698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88건(2.4%)이 기준치에 부적합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약재는 백복령, 감국, 관동화 등 36종 56건(2.1%)에서 회분(24건), 건조감량(23건), 산불용성회분(11건), 잔류 농약(10건)이 기준을 초과했다.

한약재 식품원료에서는 갈근, 구기자, 산약 등 26종 32건(3.0%)에서 이산화황(24건)과 잔류농약(8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산지별 부적합률을 보면 국내산이 2천287건 중 35건으로 1.5%인 반면, 수입산은 1천411건 중 53건으로 국내산에 비해 배나 높은 3.8%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산 구기자의 경우 이산화황이 기준치를 140배 초과했으며 중국산 울금에서는 살충제인 DDT가 기준치의 12배를 넘었다.

연구원 김명희 원장은 "DDT 등 살충제는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생산 및 사용이 금지돼 있는 농약"이라며 "중국산 한약재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사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 중국산 종자서 외래해충 발견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는 한약재로 쓰이는 중국산 쯤골담초 종자에 대한 수입 검역과정에서 콩바구미류의 일종인 키토리누스 이믹스투스(Kytorrhinus immixtus)를 국내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역소는 이 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재배중인 콩과 식물은 물론 저장중인 콩류에도 큰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 중국산 쯤골담초

에 대해 검역을 강화키로 했으며 검역해충 등록을 검토중이다.

검역소는 앞서 지난 2월 뉴질랜드산 수입 단호박에서 잎응애류 해충의 일종으로 딸기, 땅콩, 사과 등 식물 생장에 피해를 주는 테트라니쿠스 람비(Tetranychus lambi)를 국내 처음으로 발견, 해당화물을 소독처분했다.